

# 『금병매(金瓶梅)』 속 왕과(王婆)와 대안(玳安)의 인물 분석\*

김재민\*\*

## <目 次>

1. 서론
2. 인물분석
  - 1) 왕과
  - 2) 대안
3. 왕과와 대안의 서사가치(敘事價值) 고찰(考察)
4. 결론

## 1. 서론

중국 명중후기(明中後期)에 두드러지게 발전된 소설 문학은 서사의 소재가 신괴(神怪)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현실과 일상적인 삶으로 바뀌어간 것에서 변화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작품 『금병매』가 세정소설(世情小說)로서 갖는 높은 화제성과 가치는 인간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이해가 작품 안에서 성공적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800여명에 달하는 등장인물들을 필요한 만큼의 분량으로 적재

\* 본 논문은 2016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본고의 원문은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년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번역은 기본적으로 난릉소소생(蘭陵笑笑生), 강태권 옮김, 『금병매』, 솔 출판사, 2002년을 따랐다.

\*\*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중국어과 교수

1) 『금병매』를 세정소설의 최고작으로 언급한 비평가 중의 한사람인 청대(清代)의 劉廷璣(1654~?)는 『在園雜志』-0七 역조소설(歷朝小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정과 세태를 깊이 있게 다룬 것으로는 『금병매』만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기서(奇書)라 할 만하다. …… 그 속에는 가정의 일상·교제·속임과 탐욕·모든 악행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인과응

적소에 배치하고 형상화한 결과는 그들의 관계 안에서 인간 내면의 갈등과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소설적 성취 또한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절대 다수의 주변인물들이 서문경(西門慶)과 반금련(潘金蓮)을 비롯한 극소수의 인물들만을 입체적 형상으로 만드는데 동원된 듯한 형국이지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욕망의 모습들은 그만큼 확장적이다. 스스로 악한 서문경, 반금련과 같은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주변 인물들의 존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함인가. 본고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수많은 주변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에 깊이 관여 했던 왕과<sup>2)</sup>와 몰락한 서문경가(西門慶家)의 가업을 이은 노비 대안의 인물 분석을 통해 주변인물인 그들이 작품 전체의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보도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문장 또한 소털과 명주실처럼 세밀하다.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시종 한결같은 똑같은 말투이니, 책을 덮어도 몇 마디 이야기하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글의 배치와 구성이 꼼꼼한 바느질처럼 치밀하여 한 글자도 빠뜨릴 수 없으니, 어찌 보통 문필가들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若深切人情世務，無如『金瓶梅』，真稱奇書。……其中家常日用，應酬世務，奸詐貪狡，諸惡皆作，果報昭然。而文心細如牛毛繭絲，凡寫一人，始終口吻酷肖到底，掩卷讀之，但道數語，便能默會爲何人。結構鋪張，針線縝密，一字不漏，又豈尋常筆墨可到者哉!) (劉廷璣 撰，張守謙 點校，『在園雜志』，中華書局，2005，84쪽.)

- 2) 중국 고대소설에서 '왕과'는 일정한 그룹의 대상을 지칭하는 대표성을 갖는 단어이다. 『水滸傳』, 풍몽룡(馮夢龍), 능몽초(凌濛初)의 화본소설(話本小說) 및 『金石錄』, 『櫛帆萃編』, 『包公案』 등의 작품에서는 '몹쓸 할망구(虔婆者)', 『醉葫蘆』에서는 '인신 매매자(牙婆者)', 『水滸傳』, 『三言二拍』, 『粉粧樓』, 『廿載繁華夢』, 『五鳳吟』, 『醉葫蘆』 등의 작품에서는 '중매쟁이(媒婆)', 『警世通言』, 『醒世恒言』 및 『包公案』, 『鬼神傳』 등의 작품에서는 '상점주인', 『水滸傳』, 『諭世明言』, 『平妖傳』, 『跨天虹』, 『包公案』, 『水滸後傳』 등의 작품에서는 '이웃이나 일할 노부인'으로 표현되고 다른 작품들 속에서는 남성 역할의 '왕공(王公)과 맞서는 자, 왕씨(王氏) 성(姓)을 가진 노부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楊志平, 『論古代小說代指性人物的敘事功能及其文學意義——以王婆描寫爲中心』, 學術論壇, 2016, 93-94쪽 참조.)

## 2. 인물분석

### 1) 왕과

#### (1) 작자에 의한 인물묘사

작자는 왕과를 “본분을 지키는 여자가 아니다”<sup>3)</sup>라는 말로 소개하며 중매도 하고 매과(賣婆)에 산과노릇까지 하는 다방면에 재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입을 열면 육가(陸賈)를 속이고  
말을 하면 수하(隋何)를 이기네.  
육국(六國) 설득했던 제자백가들보다 언변이 뛰어나고  
삼계(三齊)보다 말재주 뛰어났네.  
외로운 봉황들을 삼시간에 짝 맺어주고  
과부와 홀아비 따로 앉아 있다 자리 옮겨 함께 하네.  
깊은 집안에 있는 여인도  
혹은 구름 타고 노니는 신선도 다 맺어주네.  
옥황전(玉皇殿)에서 향로를 들고 있는 금동(金童)은  
팔을 끌어서 데려오고  
서왕모(西王母)가 있는 궁중에서 말을 전하는 옥녀(玉女)는  
가는 허리를 안고서  
간교한 계략을 쓰면  
나한(羅漢)도 비구니를 끌어안고  
기지를 발휘하면  
신화 속 탁탑천왕 이천왕(李天王)도 귀자모(鬼子母)를 가슴에 품네.  
감언이설로 꾀면  
술한 여인의 유혹도 물리친 봉섭(封涉)이라도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말로 하면  
마고(麻姑)라도 마음이 어지러워지네.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내  
요조숙녀를 들쭉서서 상사병을 앓게 하네.

3) “不是守本分的”(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 第2回, 39쪽.)

적당히 바람을 불어넣어  
달의 선녀인 향아(嫦娥)가 사내를 유혹하게 한다.<sup>4)</sup>  
노파는 숨씨가 하도 뛰어나  
늘 남의 집에 분란만 만들어놓는다.<sup>5)</sup>

위의 사(詞)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과의 뛰어난 재주라는 것은 늘 남의 집에 분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sup>6)</sup> 『금병매』의 작자는 여타 당대(當代)의 소설이 그렇듯 등장인물의 면면에 대해 거침없고 직접적이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물을 제시하는 전형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금련, 이병아(李瓶兒), 서문경과 같은 주인공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섬세하고 비유함에 있어서도 관대하며 항상 극상의 상태로 미화되고 있다.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외모나 신체적 조건은 서로를 탐닉하는 매개가 되며 작품을 지배하는 성적 동기이므로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왕과에 대한 묘사는 그녀의 행위에 기반한 지극히 역할 중심적 묘사이다. 왕과는 문씨(文嫂), 설씨(薛嫂), 풍씨 이주머니(馮媽媽) 등과 함께 작품 속에서 그저 중매나 하고 규방에 있는 여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찮은 부류의 여인이다. 작자는 왕과에 대해 자신의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녀의 탁월한 언변과 악행의 구체적 나열로 왕과답게 창조하는 방법을 택했다.

## (2) 언어묘사

앞서 언급한 왕과에 대한 작자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은 내밀한

4) “開言欺陸賈，出口勝隋何。只憑說六國唇鎗，全仗話三齊舌劍。隻鸞孤鳳，霎時間交仗成雙；寡婦鰥男，一席話擺唆擺對。解使三里門內女，遮麼九版中仙。玉皇殿上侍香金童，把臂拖來；王母宮中傳言玉女，攔腰抱住。略施奸計，使阿羅漢抱住比丘尼；纔用機關，交李天王摟定鬼子母。話言說誘，男如封涉也生心；軟語調和，女似麻姑須亂性。藏頭露尾，攬揆淑女害相思；送暖偷寒，調弄嫦娥偷漢子。”(위의 책, 第2回, 39-40쪽.)

5) “這婆子端的慣調風月巧排，常在公門揀鬥毆。”(蘭陵笑笑生, 『金瓶梅詞話』, 人民文學出版社, 1985, 第2回, 29쪽 校記 [一五].)

6) 陳寶良(1963~)은 『明代社會生活史』의 第六節 부녀생활(婦女生活)에서 삼고육과(三姑六婆)는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뺨이나 전갈 같이 피해야만 한다고 했다.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168쪽 참조.)

탐욕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녀의 “말”로부터 시작된다. 왕파는 반금련이 집 문 앞의 발을 지탱하는 장대가 넘어져 서문경의 두건을 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다. 음탕한 마음으로 서문경을 보는 반금련과 돌아가면서도 추파를 보내는 서문경의 마음을 간파한 왕파는 “어느 어르신네가 이 집 발 아래로 지나다가 맞으셨나? 잘 맞았어요!”<sup>7)</sup> 라고 웃으며 말을 건넨다. 왕파를 통해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감흥은 아마도 그녀의 재치와 순발력 넘치는 말에서 받는 느낌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무송(武松)을 유혹하다가 실패한 반금련이 서문경을 극적으로 만나는 흥미진진함에 얹혀진 왕파의 천연덕스러운 말들은 두 주인공 서문경, 반금련의 화려한 등장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반금련 때문에 몸이 달아 자신의 찻집으로 다시 찾아온 서문경을 보며 하는 독백 — “저 놈팡이가 몸이 달긴 달았구나! 저놈의 코에 사탕을 걸어놓아 꿈쩍 못하게 만들어야지! 저놈은 마을 사람들한테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돈을 좀 쓰게 만들어야겠군.”<sup>8)</sup> — 을 보면 상대가 비록 돈과 권력이 있는 자라도 그의 음흉하고 악한 마음의 필요를 알게 된 이상 왕파는 돈을 벌 기회이지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금련에 대해 “염라대왕 동생에다 생사를 관장하는 오도장군(五道將軍) 딸이라도,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sup>9)</sup> 라고 말하는 그녀의 저돌적인 대답은 상대를 말로서 제압하려는 숨은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서문경을 쥐락펴락하며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왕파의 능력은 상대의 마음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용하여 기교가 넘치는 말로 문제를 다루어내는 탁월함에 있다. 또한 왕파의 말의 기교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독려하고 일의 진척을 이루어내는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3회에서 밀통의 조건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첫째로 반안(潘安)처럼 잘생긴 얼굴, 둘째로 물건이 당나귀만큼이나 커

7) “兀的誰家大官人打這屋簷下過? 打的正好!”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 第2回, 36쪽.)

8) “這刷子搵得緊! 你看我着些牯糖抹在這厮鼻子上, 交他抵不着。那厮全討縣裡人便宜, 且交他來老娘 手裡納些販鈔, 賺他幾貫風流錢使。” (위의 책, 第2回, 39쪽.)

9) “他是閻羅大王的妹子, 五道將軍的女兒, 問他怎的?” (위의 책, 第2回, 37쪽.)

야 하며, 셋째로 등통(鄧通)과 같이 돈이 많아야 하고, 넷째로 나이가 어리면서도 외유내강으로 단정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로는 한가한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반(潘)·여(驢)·등(鄧)·소(小)·한(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갖춰야만 말한 바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sup>10)</sup>

적당히 서문경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자신의 능력과 말에 진짜 해결책이 있음을 믿게 만드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는 엄청난 설득력이 있다. 왕과의 이러한 탁월한 말의 능력은 오롯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발휘되며 모두 부정적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후에 언급될 그녀의 행위는 그녀의 말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실제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그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왕과는 상대의 마음이 원하는 바, 필요, 의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인물 왕과의 개성적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한 성취라기보다는 반금련과 서문경의 비정상적인 만남을 매개하고 드라마틱한 소설적 흥미진진함을 상승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금련이 남편 무대(武大)를 죽이고 서문경의 집으로 들어간 후에 벌이는 악행에 견주어 보면 오히려 서문경과의 첫 만남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왕과의 관계에 금련이 휘말려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이다. 작자는 이러한 왕과의 능력을 다음과 같은 사(詞)에 담아 표현하였다.

왕과의 계략이 교묘하니  
무대는 멍청해 내막을 모르고  
술을 사서 간교한 사람을 대접하라면서  
오히려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치네.<sup>11)</sup>

10) “第一要潘安的貌：第二要驢大行貨：第三要鄧通般有錢：第四要青春少小，就要綿裡針一般軟款忍耐：第五要閑工夫。此五件，喚做『潘驢鄧小閑』。都全了，此事便獲得着。”(위의 책, 第3回, 43쪽.)

11) “阿母牢籠設計深，大郎愚鹵不知音。帶錢買酒奸詐，却把婆娘自送人。”(위의 책, 第3回, 48쪽.)

## (3) 행위묘사

『금병매』 속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곧 그들의 생각이며 마음이다. 묘사된 등장인물들의 거의 대부분의 행위들에는 그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갈등이나 고뇌, 망설임 같은 내면의 소요(騷擾)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서사는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한 서문경이 반금련을 필두로 한 수많은 여인들과 벌이는 치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요 사건의 발단이 되는 불씨는 대부분 핵심인물인 서문경의 과도한 음욕과 음탕한 행위에서 비롯되는데 작자는 작품의 초반부에서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 보여주었다.

괴이하구나. 미친 자가 거리의 여인을 사랑하다니  
 색을 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네.  
 몸도 망치고 목숨도 잃으니 모두 이 때문이라네.  
 사업도 파산하고 집도 기우니 모든 게 그 때문.  
 일순간의 풍류가 어떤 이익이 있기에  
 일반의 맛과는 다르지만  
 아침에 화가 일어났네. 담장 안에서.  
 모든 게 왕파가 만든 거라네.<sup>12)</sup>

그런데 위 사(詞)에서 볼 수 있듯이 작자는 서문경의 몰락과 죽음의 원인을 “모든 게 왕파가 만든 거라네”라는 말로 그녀의 사악함을 단죄하고 있다. 왕파에 대해 작자가 부여한 혐의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음욕에 가득한 타락한 본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외면하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매(每)회(回)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詞)의 역할을 비추어 보면 왕파의 거침없는 악행에 대한 작자의 시각은 확고하며 그녀의 말과 행위는 그만큼 충분히 악하다고 할 수 있다.

12) “可怪狂夫戀野花，因貪淫色受波嗟。亡身喪命皆因此，破業傾家總爲他。半晌風流有何益，一般滋味不須誇。有朝禍起蕭牆內，虧殺王婆先做牙。”(蘭陵笑笑生, 『金瓶梅詞話』, 人民文學出版社, 1985, 第6回, 62쪽.)

回	내용	역할
2	서문경이 발(簾) 아래에서 반금련을 만나고 왕파가 돈을 탐해 뚜쟁이 노릇을 하다. (尙潘娘簾下勾情, 老王婆茶坊說技)	뚜쟁이
3	왕파가 여인과 밀통하는 열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서문경은 찻집에서 금련을 희롱하다. (王婆定十件挨光計, 西門慶茶房戲金蓮)	밀통
4	왕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밧줄로 동여매어 두 사람(西門慶, 潘金蓮)을 집 안에 가두어 놓았다. 그러고는 길 맞은편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婆子一面把門拽上, 用索兒拴了, 倒關他二人在屋裡。當路坐了, 一頭然着績。)	포주
5	현장 달치는 것을 운가(鄆哥)가 도와 왕파를 욕하고 음란한 계집이 독을 먹여 무대를 살해하다. (鄆哥幫捉罵王婆, 淫婦藥斃武大郎)	살인공모
6	서문경은 하구(何九)에게 부탁을 하고 왕파는 술 사러 나갔다가 큰비를 만나 다. (西門慶買囑何九, 王婆打酒遇大雨)	음란행위 방조
8	이 노파(王婆)로 말하자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인간인데 비녀도 얻었겠다. 술도 얻어 마셔 얼굴이 붉어지니 약속을 굳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這婆子非錢而不行, 得了這根簪子, 吃得臉紅紅, 歸家去了。)	특권의식
76	하구의 일 때문에 나리(西門慶)께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何老九有樁事, 央及老身來對老爹說。)	협박
86	손설아(孫雪娥)가 진경제(陳經濟)를 때려주라 부추기고 왕파는 금련을 팔아 넘기려 하다. (雪娥打陳經濟, 王婆售利嫁金蓮)	인신매매
87	왕파는 재물을 탐하다 복수를 당하고 무송은 형수를 죽이고 형에게 제사 지내다. (王婆子貪財受報, 武都斗殺嫂祭兄)	화를 자초

〈표 1〉 왕파의 등장 회차와 내용

위의 〈표 1〉<sup>13)</sup>은 왕파가 등장한 회차(回次)와 그녀의 행위를 요약한 것이다. 왕파는 『금병매』 전체 100회 중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8회, 제76회, 제86회, 제87회에 등장하는데, 그녀의 등장은 항상 반금련과 관련이 있으며 제2회에서 서문경과 반금련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서문경이 죽

13) 〈표 1〉의 2, 3, 5, 6, 86, 87회는 모두 회목(回目)이다. 회목은 “장회소설(章回小說) 매회의 표제(標題)를 말하며 근대에 형성된 개념이다. 최초의 장편소설에서는 회뿐만 아니라 ‘칙(則)’ 혹은 ‘절(節)’로도 나뉘어졌다. 회목은 책의 가치, 독자와의 감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胡艷平, 『金瓶梅詞話“回目研究”』,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1쪽 참조.)

고 반금련이 다시 팔려와 제87회에서 무송의 손에 함께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왕과는 등장하는 장면마다 서문경으로부터 돈을 챙기는 한결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왕과의 행동은 앞서 기술했던 그녀의 교활한 말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며 거침이 없다. 왕과에게 있어 첫 번째 위기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년 운가의 느닷없는 등장으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났을 때이다. 운가를 통해 금련의 남편 무대가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왕과의 집을 급습하게 되어 사통의 현상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서문경에게 무대를 살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서문경에게 견어차여 병을 얻고 누워있는 무대를 독살할 것을 교사(教唆)하는 왕과의 모습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하고 잔인한 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오호라 슬프구나.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금련이 이불을 들추고 무대를 보니 이빨을 꼭 깨물고 일곱 구멍으로 피를 흘리고 있어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에 침대에서 뛰어 내려와 옆집 벽을 두드리니, 바로 왕과가 듣고서는 뒷문 쪽으로 걸어오면서 기침 소리를 냈다. 금련은 아래로 내려가 뒷문을 열어주었다. “어떻게 잘 끝냈어요?” “하긴 했는데 손발이 떨려서 뒤처리를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도와줄 테니!” 왕과는 곧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통에 물을 붓고 수건을 담가 위층으로 들고 올라갔다. 이불을 견어내고는 먼저 무대의 입 언저리와 입술을 말끔하게 닦은 후 일곱 구멍에서 흘러나온 혈흔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옷을 몸 위에 덮어 입혔다.<sup>14)</sup>

무대를 독살하고 손발이 떨려 뒤처리를 못하는 금련과 달리 마음에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왕과의 행동은 대가(代價)로 받게 될 돈을 위한 사투로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대범하다. 오히려 사투의 흔적이 없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

14) “嗚呼哀哉，身體動不得了。那婦人(潘金蓮)揭起被來，見了武大咬牙切齒，七竅流血，怕將起來，只得跳下床來，敲那壁子。王婆聽得，走過後門頭咳嗽。那婦人便下樓來，開了後門。王婆問道：‘了也未?’那婦人道：‘了便了，只是我手脚軟了，安排不得。’王婆道：‘有甚麼難處，我幫你便了。’那婆子便把衣袖捲起，舀了一桶湯，把抹布撒在裡面，擗上樓來。捲過了被，先把武大口邊脣上都抹了，却把七竅淤血痕跡拭淨，便把衣裳蓋在身上。”(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聯合出版, 1990, 第5回, 72-73 쪽.)

운 모습이 오히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반금련과 서문경의 악함과 음욕에 가득한 본성이 작품 내에서 많은 부정적 사건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가장 강력한 악(惡)인 살인을 하게 만들어 두 주인공을 본격적인 악함의 장(場)으로 초대하는 인물은 왕과이다. 왕과는 결코 중매와 매파 등의 일을 업(業)으로 삼는 전형적인 문씨, 설씨, 풍씨 이주머니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기는 어려운 존재이다. 노비 대안은 서문경을 따라다니며 행하는 습관적 행동이 주로 묘사되어 있지만 왕과는 습관적 행동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주인공 서문경, 반금련의 만남을 주도하며 새로운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파괴적 주변인물이고 왕과의 이러한 겹 없는 저돌성, 기이함, 간교함이 서문경, 반금련의 심리와 연합되어 문제적 사건을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 2) 대안

### (1) 작자에 의한 인물묘사

대안은 서문경 집안의 노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다. 제1회에서 작자는 “생김이 빼어나고, 영리해서 본래 서문경 주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놈”<sup>15)</sup> 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존재가 아주 하찮은 것처럼 설명하였다. 실제로 대안은 작품 속에서 주인에게 기생하며 사는 그의 신분처럼 서사의 방향이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대안에 대한 또 다른 평가는 반금련이나 이병아와 같은 주요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sup>16)</sup> 대부분 그의 영리함에 대한 칭찬이다. 다음 절(節)에서 대안의 말과 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겠지만 그에 대한 타인들의 견해는 그 평가를 내리는 주체가 주인인 서문경과 어떠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가가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반금련과 이병아는 주인인 서문경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기에 대안에게도 그들은 결코 무심히 대할 수 있는 상전이 아니다. 대

15) “生得眉清目秀，伶俐乖覺，原是西門慶貼身伏侍的”(위의 책, 第1回, 7쪽.)

16) “말씀씨도 좋고 영리해 (平日說話乖覺)” (蘭陵笑笑生, 『金瓶梅詞話』, 人民文學出版社, 1985년, 第8回, 84쪽.), “영리해요 눈치도 빠르고요 (好個精孩子, 眼裏說話)”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聯合出版, 1990, 第16回, 196쪽.)

안에 대해 “영리하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반금련과 이병이는 그가 “영리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결과적으로 대안은 노비로서 성공적으로 그녀들에게 행동하고 처신했다고 할 수 있다.

## (2) 언어묘사

노비인 대안은 그의 신분상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작품 내에서 서사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나 의도가 사건의 진행과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 대안의 말은 주인인 서문경의 지시를 대상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드러나게 된다. 서문경의 모든 사적인 관계에서부터 제형소이형부천호(提刑所理刑副千戶)로서 발생하는 공적 업무에 이르기까지 대안의 입과 발은 주인의 감정과 의도 그리고 행동까지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매개물이 되었다. 서문경의 신변을 따라다니며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볼 수밖에 없는 대안은 주인과 보낸 시간에 비례하여 누구보다도 서문경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고 행동 또한 그와 닮아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대안의 영리함은 실제로 그의 말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더욱더 그 순발력이 돋보인다.

서문경이 맹옥루(孟玉樓)를 셋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오랫동안 반금련을 찾지 않자 그녀는 길을 가던 대안을 불러 신세를 한탄한다. 대안은 “나리께 다른 아씨가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요즈음 집안일로 바빠서 도저히 아씨를 만나러 올 틈이 없습니다.”<sup>17)</sup> 라는 말로 주인인 서문경을 보호하려 애를 썼지만 재차 추궁하는 금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만다. 사실을 알고 우는 금련에게 대안은 “아씨 어찌 이다지도 마음 아파하십니까? 집안에 계시는 큰마님도 나리를 어찌지 못하는데.”<sup>18)</sup> 라고 말하며 주인인 서문경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은근슬쩍 표현했다. 결국 대안은 “아씨, 울지 마세요. 나리께선 요 며칠 동안 틈이

17) “俺爹再再沒續上姊妹，只是這幾日家中事忙，不得脫身來看六姨。”(齊煙、汝梅 校點，『新刻繡像批評金瓶梅』，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1990，第8回，97쪽.)

18) “六姨，你何苦如此？家中俺娘也不管着他。”(위의 책，第8回，97쪽.)

없었을 겁니다. 조만간 나리 생신이 되니, 아씨께서 몇 자 적어주시면 제가 아씨를 대신해 가지고 가서 나리께 보여드리면 반드시 오실 겁니다.”<sup>19)</sup> 라고 말하며 반금련에게 편지를 쓰도록 유도했다. 대안은 그녀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으면서도 비록 노비이지만 자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금련에게 각인시키게 되었다.

제62회에서 이병아가 죽은 후 서문경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울며 주변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었다. 그때 대안은 월랑(月娘)에게 “마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나리의 크고 작은 술좌석에 언제 두 분(應伯爵, 謝希大)이 빠진 적이 있나요? …… 나리께서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다가도 그분들이 와서 몇 마디 말씀 나누시면 나리께서는 바로 양미간을 펴고 크게 웃으시지요.”<sup>20)</sup> 라며 서문경의 기분을 전환시킬 방법을 말한다. 오월랑(吳月娘)은 대안에게 서문경의 뱃속의 벌레라도 되냐고 핀잔을 주지만 후에 서문경은 대안의 말대로 사회대(謝希大)와 응백작(應伯爵)의 입담에 마음이 풀려 식사를 하게 된다. 본처인 오월랑이나 많은 첩들도 무력한 상황에서 대안은 서문경의 기질과 심리를 꿰뚫고 있으며 주인의 인간관계까지도 깊게 파악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64회에서 대안은 부지배인(傅俠計)에게 이병아의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나리께서 적지 않은 돈을 썼다고들 하지만 사실 나리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아저씨도 잘 아시겠지만 마님께서 나리께 시집오실 적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잘 알아요. 은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금은보화에 옥띠에 머리 장식 등 값비싼 보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나리께서 마님을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sup>21)</sup>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말은 아무리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일개 노비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우선 말의

19) “六姨，你休哭。俺爹怕不也只在這兩日，他生日待來也。你寫幾箇字兒，等我替你稍去，與俺爹看了，必然就來。”(위의 책, 第8回, 98쪽.)

20) “娘每不知，爹的好朋友，大小酒席兒，那遭少了他兩個？……爹隨問怎的着了惱，只他到，略說兩句話兒，爹就眉花眼笑的。”(위의 책, 第62回, 847쪽.)

21) “……俺爹饒使了這些錢，還使不着俺爹的哩。俺六娘嫁俺爹，瞞不過你老人家，是知道該帶了多少帶頭來？別人不知道，我知道。把銀子休說，只光金珠玩好，玉帶，條環，鬚髻，值錢寶石，還不知有多少。爲甚俺多心裏疼？不是疼人，是疼錢。……”(위의 책, 第64回, 865쪽.)

내용대로 서문경 집으로 옮겨진 이병아의 돈은 오월랑과 서문경 그리고 그 돈을 옮겨준 대안과 내왕(來旺), 내보(來保), 평안(平安) 정도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서문경이 이병아를 사랑한 이유가 그녀가 가져온 재물 때문이라고 단언하는 대안의 생각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견해이고 그만큼 이병아의 재물은 서문경의 부의 축적에 큰 기여를 했다. 주인의 행동에 대한 거침없는 판단과 날카로운 그의 견해는 그저 오랫동안 주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이라는 표면적 이유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다. 주인의 수족이 되어 일상적이고 늘 반복되는 습관적 행동만을 하는 것 같은 대안은 결코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고 무지한 인물이 아님을 그의 이러한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행위묘사

노비인 대안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인 서문경은 끊임없이 대안에게 명령을 하고 대안은 주인의 말을 빈틈없이 수행하며 행동의 동기가 되는 주인의 생각이나 마음에 영합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 서문경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난 대안이 서문경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의 심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비로서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경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인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표현, 행동까지도 결정하는 노비로서 그의 처세는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다.

回	내용
1	생김이 빼어나고 영리해서 본래 서문경 주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놈이라고 함.
3	명주와 비단 세필을 사고 좋은 솜과 은자 열 냇을 챙겨 보자기에 잘 싸서 왕과 집에 갖다 주도록 함.
6	서문경은 대안을 불러 모직 보자기를 꺼내 하나하나 금련에게 건네주니 ……
7	설수가 서문경을 찾지 못하자 몸종인 대안을 보자 반가이 물음.
8	항상 서문경을 따라서 금련네 집에 왔고, 금련 또한 가끔 용돈도 주었으며, 대안이 잘못을 하더라도 서문경 앞에서 잘 말해주곤 해서 금련과는 사이가 좋음.
9	초롱불 네 개를 밝힌 가마 한 채에 금련을 태워 대안이 인도하고 왕과가 뒤따르며 서문경 집으로 들어감.

10	대안이 심부름꾼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한 명씩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
11	대원보(大元寶) 하나를 이계저(李桂姐)에게 전해 줌.
12	몰래 편지 한 통을 써서 이계저의 집에 있는 서문경에게 전달함.
13	집에 가서 은자 닷 냥을 싸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함
14	내왕, 대안 내흥(來興), 평안을 불러 찬합 두 개 은자 삼천 냥을 메고 오게 함.
15	이병아 집에 가기 위해 몰래 말을 뒷문 앞으로 끌고 가서 기다리라고 이름. 은자 한 냥 닷 전을 원사(圓社) 세 명에게 나누어 주도록 함.
16	서문경이 이병아 집에 있지 않고 기생집에서 밤을 샌다고 이야기 전함.
17	주수비(周守備) 집으로 가 풍마마 이야기 전함
18	백작이 서문경을 끌고 기생집으로 향했고 대안과 평안은 말을 끌고 그 뒤를 따름.
19	서문경은 대안에게 은자를 챙기게 하고는 말에 채찍질을 하며 가려고 함.
20	평안, 대안 화동(畫童), 금동(琴童) 넷을 시켜 이씨(李氏) 집안의 창, 문, 침대, 휘장 등 모든 물건을 다 때려 부수게 함.
∴	∴
∴	∴
76	찬합 등을 교대호(喬大戶) 집에 보냄.
77	분담 축의금을 잘 써서 교대호 집으로 가라고 이름.
78	서문경은 대안이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대안의 손을 톡 쳤다. 대안이 바로 그 뜻을 알아 차리고 .....
79	월랑은 옥루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대안과 금동 둘을 앞에만 불러 놓고 여러 가지를 물어봄.
∴	∴
∴	∴
97	대안이 주수비에게 선물 목록을 올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림
100	오대구(吳大舅)와 대안, 소옥(小玉) 그리고 열다섯 살 난 효가(孝哥)를 데리고 집안의 앞뒷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제남(濟南)에 있는 윤리수(雲理守)를 찾아가려고 했다

〈표 2〉 대안의 등장 회차와 내용

위의 〈표2〉는 대안이 제1회부터 제100회까지 작품 전체 서사에 등장하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서문경의 말을 전하거나 물건을 가져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등 행위의 대부분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며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행위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의 내용마저 가볍다고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서문경의 의도와 내밀한 마음을 왜곡과 조작 없이 그대로 전하거나 행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안의 영리한 말들과 위의 〈표2〉에 기술된 행동들을 보면 주인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충성되고 성실한 종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러나 대안은 늘 주인을 돕

기만 하는 소설적 기대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인물이 아니다. 주인인 서문경과 그와 가까운 인물들에게는 있는 힘을 다해 복종하지만 아래로는 주인의 세(勢)에 의지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sup>22)</sup>

제20회에서 서문경은 정이관(丁二官)과 함께 있는 이계저 모습을 보자 기원(妓院)에서 행패를 부리며 대안, 평안, 화동, 금동 등을 불러 모든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안 또한 금아(金兒)와 새아(賽兒)가 술 제조업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취객을 후려치며 난동을 피웠다. 이때 술집의 왕팔(忘八)은 대안이 제형소(提刑所) 서문경의 하인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 자리를 권했다.<sup>23)</sup> 권력과 세(勢)가 대단한 주인만 믿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 하면서 은연중에 주인의 행동과 못된 성질도 닮아가는 노비로서의 숙명 같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제8회에서 대안은 서문경이 맹옥루를 맞이들이며 반금련을 홀대하자 금련에게 편지를 쓰도록 권하며 상황을 넘기는 기지를 발휘해 서문경과 반금련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며 “배를 채우고(吃了點心)”, “몇 십 문의 돈(數十文錢)”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대안은 이병아의 재산 은자 3천 냥을 내홍, 평안, 내왕 등과 함께 훑기어 서문경의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 과정에 동참했으며,<sup>24)</sup> 이병아의 생일날 서문경이 그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은자 두 전(二錢銀子)”을 챙기기도 했다.<sup>25)</sup>

제38회에서 대안은 서문경의 심부름으로 말 한 필을 하제형(夏提刑)에게 갖다 주면서 수고비로 “은자 한 냥(一兩銀子)”을 받았고, 제47회에서는 묘청(苗靑)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은자 일천 냥(一千兩銀子)”을 가지고 서문경의 집으로

22) 陳寶良의 『明代社會生活史』 第四節 奴僕與游方僧道에서 “엄승(嚴嵩)의 기세가 의기충천할 때 그의 집 하인인 영년(永年)은 ‘학산선생(鶴山先生)’이라 불리며 막강한 위세를 부렸다. 또한 만력연간(萬曆年間)의 장거정(張居正), 신시행(申時行), 왕석작(王錫爵)의 유칠(游七), 송구(宋九), 왕오(王五) 세 명의 노비 또한 당시의 관리사회에서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134쪽 참조.)

23)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 第50回, 646쪽 참조.

24) 위의 책, 第14回, 174쪽 참조.

25) 위의 책, 第16回, 196쪽 참조.

왔을 때 대안은 서동, 금동, 평안과 함께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은자 열 냥(十兩銀子)”씩을 나누어 챙겼다. 또한 대안은 왕육아(王六兒)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은자 열 냥(十兩銀子)”을 받기도 했으며 서문경이 묘청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하 제형에게 전달하는 심부름 값으로 “은자 두 냥(二兩銀子)”을 챙기기도 했다.

### 3. 왕파와 대안의 서사가치 고찰

앞서 기술한 왕파와 대안은 작품의 긴 서사 안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품의 전체적 정서를 지배하며 등장인물간의 관계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만남과 악행의 시작을 연 왕파.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한 서문경의 노비로서 주인의 모든 악행들을 목도하며 때로는 그 권력에 기생하였지만 결국 몰락한 주인의 가문을 이어 작품의 서사를 종결한 노비 대안. 두 인물의 서사적 가치는 그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인물들의 행위와 삶을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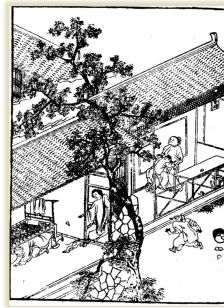
작품 내에서 왕파와 같이 중매와 매파(賣婆)의 일을 하는 인물들은 문씨, 설씨, 풍씨 이주머니 등이 있다. 그녀들의 모습은 실제 명말(明末)에 중매와 매(賣)를 업(業)으로 삼았던 여자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부분 투영되어 있고 작품 내에서도 대부분 그러한 삶의 행위들이 묘사되고 있다. 왕파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그녀들과 다른 이유는 앞서 기술했던 개성적 면모가 강한 그녀의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왕파가 서문경에게 반금련을 중매한 것은 그 일이 생계수단이며 업(業)이라는 사실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매가 문제적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반금련이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음을 왕파가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매파(媒婆)라면 중매를 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왕파는 “중매”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조장한 것이다.<sup>26)</sup> 자신의 이익 곧 돈을 얻기 위해 기본이 되는 조건을 철저히 묵살시

켰던 왕과는 점점 더 대담하고 주도면밀하게 둘의 만남을 자신의 돈벌이 기회로 만들어갔다. 반금련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들기 위해 왕과 자신의 수의를 바느질해 줄 것을 부탁하는 노련함은 어리석어 보일 만큼 착한 남편 무대의 목인과 지지를 얻게도 만들었다.



〈삽도 1〉 제4회



〈삽도 2〉 제5회



〈삽도 3〉 제5회

위의 삽도<sup>27)</sup>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만남에 왕과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서문경과 반금련을 자신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하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삽도 1〉에는 다리를 꼬고 뻘뻘스럽게 앉아있는 왕과의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삽도 2〉 역시 무대가 들이닥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온몸으로 운가를 막고 목청껏 소리 지르며 무대가

26) 吳秀華 (1963~ )는 「談“金瓶梅”中的媒婆形象」논문에서 매과(媒婆) 본연의 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질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 고대 혼인의 목적은 두 성의 좋은 것을 합하여, 위로는 종묘에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에 이으려고 하는 것이다. (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라고 했다. 중매로 혼인하는 이러한 사회 역할은 조기에 형성되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종족을 늘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다. 그러나 명청(明清) 시기에는 예법(禮法) 질서가 날로 문란해지고 금전에 대한 사욕이 커져 중매에 의한 혼인도 갈수록 변해갔다. 『금병매』속의 매과 형상이 바로 이러한 사회현상의 실증이기도 하며 매과의 역할에 대한 이중의 인식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게 한다.”(吳秀華, 「談“金瓶梅”中的媒婆形象」, 明清小說研究, 1998, 123쪽 참조.)

27) 〈삽도 1-6〉은 모두 北大本을 번각(飜刻)하고 1933年 古佚小說刊行會 影印本(王孝慈藏圖 200幅을 채택)으로 제판(製版)한 것으로 본고의 원문을 참조한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년에 수록된 것을 발췌한 것이다.

왔음을 알리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삽도 3>은 반금련이 무대에게 독약을 먹여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다. 벽 하나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삽도는 무대를 살해할 것을 교사(教唆)하고 독(毒)에 중독된 시신의 뒤통리까지 하는 기행을 일삼는 악한 왕파를 한 장면에 담은 듯하다.

그리고 무대의 동생 무송에게 자신의 악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는 서문경에게 왕파는 코웃음을 치며 “저는 여태 나리는 키잡이이고 저는 노를 젓는 사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데 나리께서 도리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시다니!”<sup>28)</sup> 라고 말하며 한심하다는 듯 타박을 한다. 작품 전체 서사의 주체인 서문경의 삶을 놓고 볼 때 그가 이렇게 완벽하게 타인의 의견과 결정에 지배당했던 적이 없었다. 작품 내에서 서문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며 등장인물 대부분이 그의 재력에 의지해 생활하는 의존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적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서사가 서문경의 음란함과 악행이 지배를 하고 있고 서사의 물리적 양도 거의 서문경의 일상이기 때문에, 일개 매파(媒婆)인 왕파의 살인 교사 행위는 악행으로서 정죄 받기보다 그저 서문경과 반금련의 비정상적인 문제적 만남의 과정에 필요한 소설적 장치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리고 왕파는 그녀의 하찮고 가벼운 신분 때문에 악행과 교활함이 희석되고 완충되는 매우 특별한 조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왕파가 주도한 이 살인은 서문경 사후(死後) 코웃음 치며 무시했던 무송에 의해 반금련과 왕파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하지만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왕파의 존재는 반금련이라는 핵심인물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며 반금련의 시악함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주변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작품 내에서 왕파의 존재는 전체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문경과 반금련의 만남이 살인이라는 악한 과정을 선택해서 얻은 관계임을 드러내 주는 증인이 되기도 한다. 張竹坡 (1670~1698)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문씨, 설씨, 풍씨 아주머니 등을 쓰면서도 왕파와 같은 특별한 인물을 만들어낸 작자의 훌륭함에 대해 큰 의미를 부

28) “我倒不會見，你是箇把舵的，我是箇撐船的，我倒不慌，你倒慌了手脚！”(齊煙、汝梅 校點，《新刻繡像批評金瓶梅》，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聯合出版，1990，第5回，59쪽.)

여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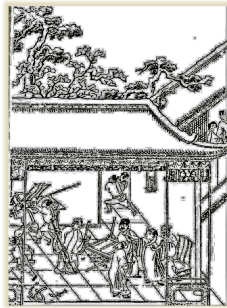
왕과가 서문경과 반금련의 극적 만남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야기의 진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대안은 『금병매』라는 작품의 긴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다. 대안은 서문경 집안의 수많은 노비들 중에 주인을 가장 가까이 모신 하인 중의 한 명이다. 대안이라는 인물이 작품 내에서 서사적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몰락한 주인의 가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얻어낸 서문소원외(西門小員外)라는 역할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노비였던 그가 신분이 바뀌고 성공적 결말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100회나 되는 긴 서사의 거의 모든 회에 등장했던 대안이 작품의 서사를 마무리하는 역할로 존재한 것은 작자가 작품의 완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키워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노비들이 서문경이 죽자 돈을 빼돌리거나 도망을 가거나 주인인 오월랑을 모욕하는 등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할 때 대안은 별다른 동요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대안의 삶과 선한 결말에 대해 黃霖(1942~)은 『金瓶梅講演錄』에서 대안이 원외(員外)가 된 것은 완전히 시간을 들여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sup>30)</sup> 대안의 이러한 삶은 심복으로 불렸던 같은 노비들의 삶과 확연히 구분된다. 내보는 제 81회에서 서문경이 죽기 전 한도국(韓道國)과 함께 은자 사천 냥을 받아 강남 각지에서 물건을 사 모으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내보는 돌아오는 길에 서문경의 죽음을 알게 되어 “팔백 냥 어치의 물건을 가게 안으로 옮겨 놓고 표시를 모두 해놓았다.”<sup>31)</sup> 또한 동경(東京)으로 가서 나머지 돈의 행방을 알아보라는 월랑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가 봐야 소용없어요! ..... 공연히 굶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

29) “왕과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매과(媒婆) 설씨, 풍씨 아주머니, 문씨, 매과 도씨(陶氏)를 썼다. 비구니 설씨(薛姑子)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비구니 왕씨(王姑子), 비구니 유씨(劉姑子)를 썼으니 모두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일부러 범하면서도 각기 두드러져 결코 서로 같지 않음에 그 오묘함이 있다. (寫一王婆, 偏又寫一薛媒婆, 一馮媽媽, 一文嫂兒, 一陶媒婆。寫一薛姑子, 偏又寫一王姑子, 劉姑子。諸如此類, 皆妙在特特犯手, 却又各各一款, 絕不相同也。)” (蘭陵笑笑生, 張道深 評, 『張竹坡批評金瓶梅』, 齊魯書社, 1987, 批評第一奇書『金瓶梅』讀法〔四五〕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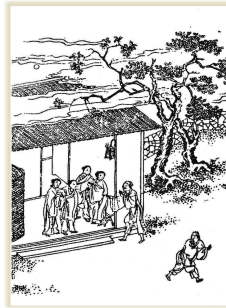
30) 黃霖, 『金瓶梅講演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216쪽 참조.

31) “暗暗船上搬了八百兩貨物, 卸在店家房內, 封記了。” (齊煙, 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 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 第81回, 11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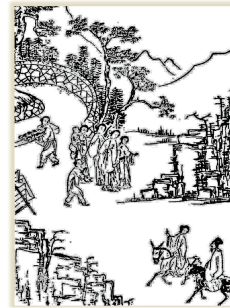
요!”<sup>32)</sup> 라고 주재님께 말을 한다. 그 후 월랑은 한도국에 받지 못한 이천 냡을 따로 떼어 내고 나머지 물건을 팔아 그 수입의 일부인 “은자 이삼십 냡 (二、三十兩銀子)”을 생활비로 내보에게 주지만 그는 받지 않으며 오히려 월랑을 걱정하는 척 허세를 부린다. 며칠 후, 술에 잔뜩 취한 내보는 월랑의 방에 들어가 “마님께서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나리께서 돌아가셨으니 혼자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절을 하시기가 너무 외롭고 적적하지 않으세요?”<sup>33)</sup> 라고 그녀를 희롱하기도 했다. 또한 내소는 제90회에서 서문경이 죽자 내왕과 손설아의 도망을 도와 재물을 챙겼고,<sup>34)</sup> 내왕은 제90회에서 부인인 송혜련(宋蕙蓮)의 일로 쫓겨난 후 서문경이 죽자 돈과 재물을 가지고 손설아와 도망을 간다.<sup>35)</sup> 또한 평안은 제95회에서 서문경이 죽자 저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오전은(吳典恩)에게 잡혀 오월랑을 곤경에 빠뜨리는 진술을 한다.<sup>36)</sup> 이렇게 서문경의 노비들은 주인이 죽은 후 거의 모두 동일한 행태를 보였다.



〈삽도 4〉 제20회



〈삽도 5〉 제50회



〈삽도 6〉 제89회

위의 삽도는 대안의 행위가 담긴 작품들이다. 〈삽도 4〉는 앞서 설명했던 제20회에서 서문경의 명령으로 기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고 〈삽도 5〉는 제50회

32) “咱早休去! …… 到沒的招惹虱子頭上撓。”(위의 책, 第81回, 1179쪽.)

33) “你老人家青春少小, 沒了爹, 你自家守着這點孩子兒, 不害孤另么?”(위의 책, 第81回, 1179쪽.)

34) 위의 책, 90回, 1282쪽 참조.

35) 위의 책, 90回, 1283쪽 참조.

36) 위의 책, 95回, 1345-1347쪽 참조.

에서 대안이 서문경이 했던 것처럼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다. <삽도 6>은 서문경이 죽고 난 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월랑, 맹옥루, 효가, 여의아(如意兒), 소옥과 함께 묘에 가서 준비를 하는 장면이다. 무덤 앞에 소, 돼지, 양을 진설하고 국, 밥 등의 제물과 지전들을 옮기는 왼쪽 위의 인물이 대안이다. 대부분의 노비가 배신을 하여 도망을 가거나 떠난 후에도 여전히 집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위의 세 삽도에는 주인을 닮은 대안의 소심한 악행도 담겨있고 몰락해가는 주인의 집안을 끝까지 돌보며 노비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직하고 신의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대안의 행위들을 요약해 놓은 <표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대안이 제1회부터 주인 서문경이 죽은 제79회까지 등장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제100회까지 줄곧 등장한다는 것이다. 작품 속 많은 등장인물들이 중요한 핵심 인물이거나 작은 비중을 담당하는 하찮은 인물이라도 자신의 역할과 서사적 소임을 다하는 제한적 시간이 존재한다. 작자는 죄로 몰락한 서문경 가문은 물론 그 악함의 치열함 속에 존재했던 인물들을 이야기 속에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보정선사(普靜師)의 제(祭)를 빌어 소환하고 환생시켜 마무리하였다. 대안이 작품의 시작과 대서사의 마지막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작자가 악의 틈바구니에서 살려둔 오월랑을 보호하고 서문경가(西門慶家)를 잇는 방법으로 대안이라는 인물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를 택했기 때문이다. 대안의 노비로서의 행위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그의 행동이 선하다거나 주인인 서문경을 포함한 대다수의 악한 등장인물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성공은 악한 주인의 행동과 의식을 나누어 실행하고 발전시킨 노비로서의 생존방식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張竹坡는 대안에 대해 작자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라 평가했다. 주인을 닮아 더러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던 대안을 여러모로 호감이 가는 인물로 묘사한 궁극적 의도는 월랑이 마지막에는 대안에게 의지해야 했고 독자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37)</sup>

37) 蘭陵笑笑生, 張道深 評, 『張竹坡批評金瓶梅』, 齊魯書社, 1987, 批評第一奇書『金瓶梅』讀法 [一七], 28-29쪽 참조.

#### 4. 결론

주인공 서문경이 작품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갖는 것은 작자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타인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지배력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신분이 하층은 왕과나 대안같은 인물은 주도적으로 서사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등의 큰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왕과와 대안은 신분적 제약과 자신들 소임의 한계를 넘어 작품 전체의 서사를 하나의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왕과는 사악한 반금련의 정체성과 그녀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인물이고 대안은 악행으로 삶을 끝낸 서문경을 돕기 위한 마지막 인물이다. 작품 내에서 왕과와 대안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 인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과와 대안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 면모와 행위가 조화롭게 창작되어 작품의 견고한 완성됨에 성공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금병매』를 『금병매』답게 만든 “부분의 전체를 향한 완전함”이 존재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금병매』가 당대(當代)의 일상적 삶을 기초로 한 이야기이지만 만일 일상의 복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야기는 그저 진부한 나열적 서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작자는 서문경과 반금련이라는 악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인간 내면의 추악한 본성을 왕과와 대안 같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하고 묘사하여 일관성 있게 서술하였다.

#### 〈參考文獻〉

- 齊煙、汝梅 校點, 『新刻繡像批評金瓶梅』, 香港,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齊魯書社(山東) 聯合出版, 1990.
- 蘭陵笑笑生, 『金瓶梅詞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5.
- 蘭陵笑笑生, 張道深 評, 『張竹坡批評金瓶梅』, 山東, 齊魯書社, 1987.
- 劉士聖, 『中國古代婦女史』, 青島出版社, 1991.
- 劉廷璣 撰, 張守謙 點校 『在園雜誌』, 北京, 中華書局, 2005.
- 傅光明 主編, 『插圖本點評金瓶梅』,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7.
- 孫遜 主編, 『金瓶梅鑑賞辭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5.

- 孫述宇, 『金瓶梅의藝術』, 香港, 明報出版社, 1983.
- 楊鴻儒, 『細述金瓶梅』, 北京, 東方出版社, 2007.
- 褚翰生, 『奴婢史』, 上海文藝出版社, 1994.
-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王志武, 『金瓶梅人物悲劇論』, 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6.
- 黃霖, 『金瓶梅講演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孫志剛, 『金瓶梅敘事形態研究』(博士學位論文), 哈爾濱師範大學, 2010.
- 秦佳慧, 『“金瓶梅”王婆形象的塑造及其影響』(碩士學位論文), 臺灣 國立中正大學 中國文學研究所, 2004.
- 胡艷平, 『“金瓶梅詞話”回目研究』(碩士學位論文), 中國 河南大學, 中國古代文學, 2017.
- 盧憶北, 「論“金瓶梅”中西門慶家的男僕形象」, 福建, 閩江學院學報, 2016년 11월.
- 徐長偉, 「論“金瓶梅”中的王婆形象」, 甘肅, 隴東學院學報, 2007년 12월.
- 楊志平, 「論古代小說代指性人物的敘事功能及其文學意義—以王婆描寫爲中心」, 廣西, 學術論壇, 2016년 8월.
- 吳秀華, 「談“金瓶梅”中的媒婆形象」, 南京, 明清小說研究, 1998년 9월.
- 蘭陵笑笑生, 康泰權 옮김, 『完譯 金瓶梅』, 서울, 솔 출판사, 2002.
- 金宰民, 「“金瓶梅”작품 속의 奴婢 研究」, 서울, 韓國中國語文學硏究會, 『中國語文學論集』 第33號, 2005.
- 金宰民, 「“金瓶梅”를 통해 본 明代의 奴婢」, 서울, 韓國中語中文學會, 『中語中文學』 第38輯, 2006.

〈Abstract〉

A Study on Two Key Characters [Wang Po (王婆) and Dai An (玳安)]  
in 'Jin Ping Mei (金瓶梅)'

Kim, Jae-Mi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Wang Po (王婆), Dai An (玳安) and other protagonists. The narrative features of Wang Po (王婆) and Dai An (玳安) have been analyzed from three aspects: narratives of character, dialogue and behavior.

The mood of the characters dominates the overall work: Wang Po (王婆) has pushed Ximen Qing (西門慶) and Pan Jinlian (潘金蓮) into the dangerous (liaison) and unspeakable relationship, while Dai An (玳安), the slave of Ximen Qing (西門慶), kept silent after witnessing all the evil behavior of his master. The value of these two characters can truly be presented when they also went down with their master at the end.

In addition, the behavior of these two characters has general and specific value in the book. It made the work more stable and complete.

In 'Jin Ping Mei (金瓶梅)', the actions that the characters take reflect what they have on their minds. The characters hardly show any inner conflicts or hesitation in taking actions. Their instantaneous verbal and physical responses heavily rely on their instinct. The protagonist, Ximen Qing (西門慶), has the ultimate power because his thoughts and actions control others' fate. In an epic story of this kind, a lower class character such as Wang Po (王婆) or Dai An (玳安) cannot be considered as the one who is changing the course of the story or in the center of the conflict.

However, Wang Po (王婆) and Dai An (玳安) have a unique voice of their own as well as those found in every human beings.

The author created and developed those characters by balancing their unique and universal traits.

They certainly contributed to making 'Jin Ping Mei (金瓶梅)' special. 'Jin Ping Mei (金瓶梅)' depicts everyday life in a given period, but it does not present it in a linear way. Wang Po (王婆) is a character who helps Panjinlian (潘金蓮) find her identity, and Dai An (玳安) is there to assist Ximen Qing (西門慶).

Key words: 'Jin Ping Mei', Wang Po, Dai An, character, narrative

이 논문은 2019년 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